

완판방각본 <별춘향전>의 성격

김 석 배*

차 례

I. 머리말	한창기 소장본 [별춘향전이라]의 성격
II. 임형택 소장본 [별춘향전이라]의 성격	IV. 맺음말
III. 박순호 소장본 [별춘향전이라 극상]과	* 부록: 영인자료

I. 머리말

최근에 김종철 교수에 의해 이제까지 알려진 완판본 <춘향전>과 다른 임형택 교수 소장의 26장본 [별춘향전이라]([임29장본])¹⁾가 소개됨으로써 완판본 <춘향전>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²⁾ 주지하다시피 <춘향전>에 관한 선구적인 업적은 김동욱 선생의 『增補春香傳研究』³⁾에 집대성되어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 본고는 여러 분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귀중한 자료의 영인을 허락해 주신 류탁일, 임형택, 박순호 교수님의 두터운 배려를 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1) 앞으로 [별춘향전이라]는 원제명을 굳이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에는 [임26장본]으로 약칭한다. 그리고 면수도 제1장 앞면을 1면, 뒷면을 2면 식으로 밝힌다. 다른 이본의 경우도 이와 같다.

2) 김종철, 「完西新刊本 <별춘향전>에 대하여」, 『관소리 연구』 7, 관소리학회, 1996.

3) 김동욱, 『증보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있다. 그 곳에서 羅孫 선생은 한창기 선생 소장 of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이라]를 소개하면서 [한29장본]→ 완판 33장본 [얼너춘향슈절가라]→ 완판 84장본 [얼여춘향슈절가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⁴⁾ 그 후 그 견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고, 완판본 <춘향전> 연구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⁵⁾ 그러나 [임26장본]이 발굴되고, 진전된 연구성과⁶⁾가 발표됨으로써 완판본 <춘향전>의 성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제까지 이루어진 완판본 <춘향전>의 성격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우선 '별춘향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임26장본]과 [한29장본], 그리고 [한29장본]과 동종이판본인 박순호 교수 소장의 29장본 [별춘향전이라 극상]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를 통해 필자의 선행연구가 안고 있는 일부 오류도 바로잡힐 것이다. 뒤에 본고에서 주목한 부분의 일부를 影印하여 참고자료로 붙여둔다.

II. 임형택 소장본 [별춘향전이라]의 성격

1. [임26장본]의 서지적 특징

[임26장본]의 자세한 서지 사항은 선행연구로 미루고 본고에 필요한 사항

4) 김동욱, 앞의 책, 437-451면 참고. 이 자료들은 모두 김동욱 외 공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羅孫書屋, 1982, 941~956면)에 영인되어 있다.

5)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경음사, 1986.

최정락, 「기록적-판소리문학의 성장·변이 양상 고찰-완판 춘향전 3이본을 중심으로-」, 『서강 이정택 교수 화갑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동간행위원회, 1987.

설성경, 『춘향전의 통시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4.

김석배, 「완판방각본 춘향전의 이본 연구-계통과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논문집』 15, 금오공대, 1994.

6) 김종철, 「별춘향전 복원-박순호, 한창기본을 중심으로-」(『아주어문연구』 2, 아주대 국문과, 1995)와 김종철, 「完西新刊本 <별춘향전>에 대하여」(『판소리 연구』 7, 판소리학회, 1996). 본고는 이 연구성과에 크게 도움 받고 있음을 밝혀둔다.

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⁷⁾ 卷首題(內題)는 “별춘향전이라”이고, 마지막 장인 제26장 뒷면(52면) 끝에 “戊申季秋完西新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총 26장 중에서 제6장 뒷면(12면)과 제7장(13, 14면)은 낙장되었고, 제14장(27, 28면)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缺本이다. 四周單邊, 半葉匡郭 가로 17.5cm 세로 20.2cm에 한 면의 行數와 한 行의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글자체도 行書體와 楷書體가 섞여 있고, 版心題도 “春香”, “春香傳”, “춘향” 등이 섞여 있다. 이러한 不整한 모습은 [임26장본]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보판 과정을 거친 뒤에 출판된 판본임을 알려준다. 완판본의 경우 해서체가 행서체보다 뒤에 등장했고,⁸⁾ 후대로 내려올수록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 면의 行數와 한 行의 字數를 늘리는 경향이었던다는 점⁹⁾을 고려하면 [임26장본] 중에서 한 면 12行的 행서체로 된 제1장~제9장(또는 제16장~제20장)이 초간본의 것이고, 해서체로 되어있는 張들은 후대에 보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종이판본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임26장본]이 출판된 것은 해서체로 보판된 마지막 장의 “戊申季秋完西新刊”이란 刊記로 보아 1908년일 것이다. 그러나 [임26장본]의 초간본은, 현재의 貨物本이 두 차례 이상 보각을 거친 뒤에 출판된 것이므로 이보다 제법 앞선 19세기 후반기에 나왔을 것이다. [임26장본]의 초간본이 [박29장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거나 조금 늦게 등장하였고,¹⁰⁾ [한29장본]의 초간본이 1850년대 전후에서 1890년대 사이에 나왔다¹¹⁾고 한다면 [임26장본]의 초간본은 1850년대 전후에

7) 김종철(1996), 앞의 글, 26~31면 참고.

8)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75~78면 참고.

9) 경판본도 후대로 내려올수록 한 면의 行數가 늘어난다. 1780년 이전은 12行, 1780~1840년대는 13行, 1847~1858년경은 14行, 1859부터는 15行, 1887년부터는 16行的 판식이 주로 사용되었다.(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294면). 이러한 판식의 변모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장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완판본의 경우 경판본에 비해 한 면에 字數를 적게 새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주지역이 서울에 비해 면당 생산단가가 저렴했기 때문일 것이다.

10) [임26장본]의 내용 특히 이도령과 결연한 뒤 대비정속한 춘향의 신분과 춘향의 해몽 단락의 위치 등을 면밀히 고찰한 후 내린 결론이다. 김종철(1996), 앞의 글, 37~42면 참고.

11) 류탁일, 앞의 책, 176면.

서 1890년대 사이에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류탁일 교수 소장본 [통감]의 뒷표지 안쪽에 裱接되어 있는 <춘향전>의 낱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낱장은 최근에 주목받았는데,¹²⁾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그 실상을 제대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 낱장은 四周單邊, 半葉匡郭 가로 16.3cm 세로 19.4cm 가량이다. 그리고 너비 1cm 가량의 版心에 上下內向黑魚尾, “춘향”이라는 판심제, 장수를 표시한 “二十”이라는 張次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판심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는 [입26장본]의 제20장 앞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第1行부터 第12行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고, 왼쪽에는 뒷면에 해당하는 第1行 전체가 배접 과정에서 글자가 반 정도 잘려져 나간 상태로 남아 있다.

원문의 行 구분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단, () 안은 희미하거나 잘려진 부분을 [입26장본]에서 복원한 것이다.

[제20장 앞면]

(쳐 입)고 현 집석키 들메 신고 철써 업는 현 파(리을)
 버레줄을 총 (미)여 놀너쓰고 (굽)강을 열는 지
 너 여산의 속소호고 전주의 드러와셔 잡힘을
 현 연후의 노구바우 열는 지너 오수역의 속소호
 고 박석퇴을 당도호이 잇씨는 방농시라 농부
 들리 술을 취케 먹고 농부가로 논일 저기 어여
 루 상스뒤요 네 다리 빼라 니 다리 박즈 어여루
 상스뒤요 이 농스를 어셔 지여 부모 봉양호여
 보시 어여루 상스뒤요 투두릉통 # 짱땀(짱) 여
 바라 동무더타 죽어가는 춘향이을 살여볼
 가 어스가 # 만이 셔 # 귀경호다가 여보소 농부업
 너 글너 춘향이 잘 (지닌요) 현더 농부 허() 웃

[제20장 뒷면]

(고 춘향이 말은 물러 무엇호계요 춘향이 어제 죽어 그격미)

이 낱장은 [입26장본]의 해당 부분과 행문은 물론 판식, 글자체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므로 같은 판목에서 인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2) 설성경(1994), 앞의 책, 181~185면. 김종철(1996), 앞의 글, 28~29면.

[임26장본]에 비해 판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이러한 판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판목의 收縮에 따른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목판본의 경우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다.¹³⁾ 요컨대 [임26장본]은 개판시의 원상태대로(100%) 인행된 初印本이고, 낱장은 시간이 흘러 책판이 약간 수축된 상태(가로 93%, 세로 96%)에서 인행된 後印本인 것이다.

그리고 ‘별춘향전’이란 제명으로 출판된 이유 특히 ‘별’자를 내세운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동욱 교수는 [한29장본]을 소개하면서, 1840년대에서 50년대에 간행되었다가 뒤에 보관된 것으로 애초 關板時의 원명은 <春香傳> 또는 <春香歌>였는데 독자를 <烈女春香守節歌>에 빼앗겨 <別春香傳>으로 보각한 것으로 보았다.¹⁴⁾ 그러나 그것은 완판본 <춘향전>의 간행 시기¹⁵⁾로 미루어 볼 때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여하튼 ‘별’자를 내세우고 있으니 ‘별춘향전’ 이전에 ‘춘향전’이란 제명의 판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별’자를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별춘향전’보다 선행한 <춘향전>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임26장본]의 간행시기(1850년대 전후에서 1890년대 사이)로 보아 경판본 <춘향전> 중에서 이른 시기에 출판된 [경판35장본](춘향전단, 1844년~1854년 사이 추정)과 [경판30장본](춘향전권지단, 1852년~1863년 사이 추정)¹⁶⁾일 가능성이 크다. [경판35장본]과 [경판30장본]이 호남지역에 진출¹⁷⁾하여 독자들의 인기를 끌자 영리에 밝은 전주의 방각업자들도 그에 편승하여 <춘향전>을 출판하였을 것이다. 방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우선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책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경판본 <춘향전>과 다른 ‘새로운 <춘향전>’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고, 그 전략으로 ‘별’자를

13) 이 외에 판목의 膨脹, 뒤뜯림, 破損, 虫蝕, 磨滅, 燒失 그리고 인행시 및 인행 후의 종이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27면 참고.

14) 김동욱, 앞의 책, 438~439면.

15) 류탁일(1981), 앞의 책, 153~177면 참고.

16) 이창현, 앞의 글, 321면.

17) 경판본 <춘향전>은 주로 서울지역에서 판매되었겠지만 호남지역에서도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붙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화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편 과정에서 ‘별’자를 붙였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임26장본]과 다른 <춘향전>의 관계

1) [박29장본]과의 친연성

[임26장본]과 [박29장본]¹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친연성이 큰 부분도 적지 않다. 암행어사 출도 대목을 통해 친연성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임26장본] : 어스 보고 글을 보고 ○글을 보고 어스 보니 ●엄동설한 문난드시 별〃 썬일면서 하관은 오날이 학질 직쳐러로 가느니다 전주판관 눈치 치고 하관은 기민쥬려 가느니다 이령저령 훗터질 제 에서 썩운 계셔 썩운 셔리난 눈을 끔적 청피역놈 거동 보쇼 달 갓턴 마피을 히갓치 들어메며 소리를 놉피 하여 암행어사 출도야 호난 소리 반공의 진동호야 일부가 뒤눈난 듯 당상의 모든 슈령 전방지방 다라날 제 겁닌 거동 기구하다 잡바지며 업퍼진다 본관의 거동 보쇼 칼집 쥐고 오쥬 누며 언어슈작 돌너 홀 제 문 들어온다 발람 다더라 물 말오다 목 드려라 곡성현감 거동 보쇼 말을 격구려 (타고 일아〃〃) 쥬 치들 동현으로 가난고나 좌우 나쥬 훗터(질 제 둥구)난니 거문고요 썬지난이 북통이라(49~50면)

[박29장본] : 어스 보고 글을 보고 ○글을 보고 어스 보고 엄동설한 문난드시 별〃 썬일면서 하관은 오날리 학질 즉쳐러로 가느이다 구례현감 눈치 쥬이고 하관은 기민쥬려 가난이다 이령저령 훗터질 제 최방의셔 썩운〃〃 삼반 하인 썩운〃〃 에서 썩운 계셔 썩운 셔리는 눈을 끔적 청피역놈 거동 보이라 달 갓턴 마피을 히갓치 들어메고 소리를 놉피 하여 암행어사 출도야 호는 소리 반공 진동호야 일부가 뒤눈는 듯 당상의 모든 슈령 전방 지쥬 드라날 제 겁닌 거동 기구하다 잡바지며 업퍼지며 본관의 거동 보쇼 칼집 쥐고 오쥬 누며 갓모즈 썬여 썬고 두 눈을 쥬디 썬고 언어슈작 돌너 홀 썬 문 들어온다 발람 다더라 물 말오다 목 들려라 곡성현감 거동 보쇼 말을 격구려 타고 일아〃〃 치 친들 동현으로 가느고나 본관은 기공의 썬기여서 열청이가 되얏구나 좌우 나쥬 미식들리 훗터질 제 둥구나니 거문고요 썬지난 북통이라(56~57면)

18) [박29장본]과 [한29장본]은 동종이판본이므로 앞으로 다른 이본과 비교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박29장본]을 대상으로 한다.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26장본]은 [박29장본]의 밑줄 그은 부분을 제외하면 완전히 일치한다.¹⁹⁾ 이러한 친연성은 양본이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출판된 데서 말미암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외에도 상당한 부분에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2) [경판30장본]과의 친연성

[입26장본]은 경판 30장본 [춘향전권지단]과도 강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新官到任 대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작품 끝에 붙어 있는 교훈적인 후기는 완전히 같다.²⁰⁾ 그리고 [경판30장본]에 비해 다소 축약되어 있지만 이어서와 월매가 수작하는 장면도 친연성이 크다.

[입26장본] : 춘향집 촌죽 가니 춘향 어미 거동 보소 탕관의 죽을 쑤며
 눈물 흘려 탄식하난 마리 나의 팔조 괴박하여 조상부모하고 중년의 상부하고
 말년의 팔 한나 "아더니 원슈 니도령만 밋고 저 지경을 당하니 이을
 엇지 호잔 말가 호거날 니도령이 " 말을 드로미 그 경상이 가련하다 춘향
 어미를 부르니 춘향 어미 대답하난 마리 워라셔 이 심난 중의 와 부르난고
 나와 익이 보다가 하난 말리 거어지난 눈도 업난가 너 집 모양 보다 물을
 소가 동양 줄 것 업난지라 밋비 도라가라 니도령이 어어업셔 또 부르되 전
 칩방 도령님이로라 하니 춘향 어미 그제야 아라듯고 두 눈을 이리 쓰고 저
 리 쓰고 즈셔이 보다가 밋작 놀니 호난 말이(41~42면)

[경판30장본] : 춘향의 집을 급히 춘져 간니 장계의 푸른 풀은 니한을
 띄여 있고 동정의 썩은 오동은 별루를 먹음엇는디 밋장원은 잣바지고 밋치
 는 쓰러지고 안치는 기우러져 석가탑 고의 벗고 마당은 기뽕밋치 되엇스니
 엇지 한심치 아니리오 마당의셔 밋피보니 춘향 어미 탕관의 죽을 쑤며 눈
 물로 흘난하여 탄식하는 말이 너의 팔조 괴박하여 조상부모하고 중년의 상
 부하고 말년의 팔 한나 바라더니 원슈 니도령만 밋고 저 지경을 당하니 이
 를 엇지 호잔 말고 바라논이 호느님 밋피소서 호거날 니도령이 " 말로 드
 르미 그 경상이 가장 가련호지라 탄식 왈 추억 일시 익회니 네 초홀 날이
 설마 업스라 호고 춘향 어미를 부르니 춘향 어미 대답하난 말이 워라셔 이
 심난 중의 와서 불르논고 호고 노와 너이 보다가 거지는 눈도 업난가 너

19) [남원고사]와, 정명기 소장의 필사 42장본 [별춘향가]에도 전주판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이본 예컨대 [경판23장본], [안성판20장본] 등에는 암행어사 출도 후에 "전주판관은 분요 중의 말을 거구로 타며 호인다러 말 목이 어되로 갖느나 근본 업더나 아피커는 밋비 가즈"로 되어 있다.

20) 김종철(1996), 앞의 글, 42~45면 참고.

집 포안을 보다가 모를손가 망니쌀 호는 두엇다가 옥중의 갖쳐주고 옥발라 지 호노라 가슴을 탕진호였스니 동난줄 것 업는지라 밤비 도라가라 호거을 니도령이 심중의 우으며 쯔 부르니 춘향 어미 그리호여도 몰는 보고 그 뒤 시오 김권롱인지 환상 지족호라 왔는보되 이 중의 힐 슈 업스니 죽이거는 살우거는 호라 호거을 니도령이 어이업서 쯔 부루되 전척방 도련님이로라 호니 춘향 어미 그계야 아라듯고 두 눈을 이리 싹고 저리 싹고 쯔서히 보다가 째작 늑는 호는 말이(44~45면)

[임26장본]은 [경판30장본]의 밑줄 그은 부분과 같다. 이것만 두고 보면 [임26장본]은 [경판30장본]을 축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옥중의 춘향을 만나고 돌아오는 곳에서부터 신관 생일잔치에서 어사가 술상 받고 심술부리는 장면까지, 암행어사 출도 후 어사와 춘향이 상봉하는 장면도 이와 같다. 그러나 [임26장본]이 [경판30장본]을 저본으로 축약되었거나, 역으로 [경판30장본]이 [임26장본]을 저본으로 부연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필사본 중에 [임26장본]과 부분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박순호 소장 48장본 [춘양가라],²¹⁾ 정명기 소장 42장본 [별춘양가] 등의 寫本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임26장본]의 底本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²²⁾

3. [임26장본]의 축약 양상

[임26장본]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상당 부분이 축약된 판본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²³⁾ 어사출도 후 어사와 춘향이 상봉하는 장면을 통해 축약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26장본] : 슈의어스 거동 보쇼 본관을 봉고파출호고 요경의 장계호 후의 전후 공스를 처결호 제 위션 죄슈 춘향을 울이라 옥스경이 춘향을 압영호여 드로운 제 춘향이 울며 호난 말이 우리 도령님더러 오날 칼머리노 드러달나 천만당부호였더니 그더지 날을 너고 구복을 죄우라고 어드를 가이 경상을 아니 보난고 호며 방성더꼭호더라 니줄이 춘향을 울넌디 형방이

21)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5(오성사, 1986, 39~133면)에 영인되어 있다.

22) 寫本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판30장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3) 김종철(1996), 앞의 글, 31~34면 참고.

이르되 어스또 분부 너어 오늘부터 너을 슈청 드리라 하시니 그들로 거헝
 하라 춘향이 엇즈오디 전등스또 존재와 빅연결약호엇기로 분부 시헝 못호
 거습니다 어스또 이로디 노류장화의 슈결이 불가하니 밧비 슈청 들나 호고
 기싱을 분부호여 춘향의 썸 칼을 니로 무러쓰더 벗기라 드른 기싱이 다라
 드러 무러쓰더 벗겨너니 어시 춘향더러 분부호되 네 얼굴 들어 날을 보라
 춘향이 눈을 들어 팔뻘본즉 이곳 니도령이라 불문곡직호고 썸어 올라가며
 얼스결스 조호시고 이런 일 또 잇난가 엇그제 결인으로 오날 암헝어스 될
 줄 귀 뉘 알며 옥중의셔 고상하다가 어스셔방 만나 세상 구경 다시 하 줄
 뉘 알손야 너거시 썸인가 상인가 경말인가 거죽말인가 조호시고 어스셔방
 조호시고 이리 썸썸어 저리 썸썸어 만 가지 즐길시(50~51면)

[경관30장분] : 어시 남원부스를 위션 봄고파출호고 도경의 작계호 후의
 동헌의 죄기를 좃아고 전후공스를 쳐결호고 판속의 죄상은 더분부호라 호
 고 위션 죄슈 춘향을 올라나 하니 옥스장이 춘향을 압녕호여 들어올 제 춘
향이 칼머리를 잡고 울며 호는 말이 우리 도련님더러 오날 칼머리는 드리
달나 천만당부호여더니 귀한을 못 이고여 어의 갖도다 오날은 필경 스싱결
 짤이 날 거시여늘 우리 도련님 어의를 가고 이 경상을 아니 보노고 호며
 방성더곡호되라 나썸이 춘향을 올인디 형맞아전이 〳르되 어스또 분부 너
 의 오늘부터 너을 슈청드리라 하시니 그들로 거헝하라 춘향이 엇즈오디 쇼
네 전등스또 존재 도련님과 빅연결약호엇기로 분부 시헝 못호기습니다 어
신 이르디 노류장화는 인지가결이라 녀 갖흔 전기로 엇지 니도령 밧고 슈
 절호러오 밧비 슈청들느 하니 춘향이 엇즈오디 아모리 천기운돌 이의 밧악
 호 후의 엇지 일구어연호러오 사또계셔 쇼녀를 만단의 니실지라도 마음을
 변혁지 못호러쇼이다 어시 같오디 너 갖흔 절기 구드미 엇지 아람답지
 아니리오 호고 기싱들을 분부호여 춘향의 썸 칼을 니로 무러쓰더 벗기라
 하니 뉘 영이라 거여호러오 모든 기싱이 다라드러 무러쓰더 벗겨너니 어시
춘향더러 이르되 네 얼굴 들어 날을 보라 호거늘 춘향이 엇즈오디 보기도
 슬습고 말슴 더척호기도 어렵스오니 밧비 죽너 쇼녀의 원을 이부게 호쇼셔
 어시 이 말을 드고 도로혀 가련이 여겨 같오디 아모리 실러도 잠간 눈을
 들어 썸서히 보라 하니 춘향이 그 말을 드고 의아호여 눈을 들어 팔뻘본즉
의심업스 니도령이라 불문곡직호고 썸어 올라가며 얼스결스 조호시고 이런
일도 고금의 또 잇는가 넷날 호신도 표모의게 괴싱호고 쇼년의 욱을 보다
 가 호느라 더장되 줄 뉘 알며 강터공도 선패십 궁곤호여 위슈번의 너더를
 드리오고 잇다가 뉘나라 정승될 줄 뉘 알며 엇그제 결인으로 단디다가 오
날 암헝어스 될 줄 그 뉘 알며 옥중의셔 고상하다가 어스셔방 맞는 세상
구경할 줄 뉘 알손야 열시고 조호스 어스셔방 조호시고 이거시 썸인가 심
싱가 경말인가 거죽말인가 즐겁기도 그지업니 어스셔방 즐겁도다 어제 결
인으로 날를 와 볼 제 오늘 슈의어스될 줄 노는 물난네 호며 이리 썸썸어
저리 썸썸어 만가지로 즐길시(55~57면)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임26장본]은 [경관30장본]의 밑줄 그은 부분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임26장본]은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축약된 것이다. 그 이유는 방각소설의 독자층의 성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한글 해독이 능력이 있는 일부 농민층이 농한기에 소일거리로 방각본 소설을 읽었다.²⁴⁾ 그러나 그들이 비록 다소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파적거리에 불과한 방각소설을 高價를 지불하고 사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방각업자들도 많은 부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엽가의 보급판을 공급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엽가 보급판의 생산은 투자비도 적게 들어 그만큼 경제적인 위험 부담도 적어져 영세한 방각업자에게도 유리한 것이었다. 요컨대 방각업자들은 독자들의 구매력에 맞는 엽가의 보급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장수를 줄였고, 그 과정에서 대폭적인 축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Ⅲ. 박순호 소장본 [별춘향전이라 극상]과 한창기 소장본 [별춘향전이라]의 성격

1. [박29장본]과 [한29장본]의 서지적 특징

[임26장본] 외에 ‘별춘향전’이라는 제명으로 출판된 완판본 <춘향전>에는 박순호 교수 소장본 29장본 [별춘향전이라 극상]과 한창기 선생 소장본 29장본 [별춘향전이라]도 있다. 이들은 同種異板本인데, 전자는 일찍이 발굴되어 오래 전부터 주목받았고,²⁵⁾ 후자는 근래에 발굴되어 주목받기 시작했다.²⁶⁾ 자세한 서지 사항은 역시 선행연구로 미루고 여기서는 본고에 필요한 사항을

24) 유탁일(1981), 앞의 책, 29~34면 참고.

25) 김동욱, 「별춘향전에 대하여」, 『증보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6.

26) 김석배, 「완판방각본 춘향전의 이본 연구」, 『논문집』 15, 금오공대, 1994.

김중철, 「별춘향전의 복원」, 『이주어문연구』 2, 이주대 국문과, 1995.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

먼저 [박29장본]의 서지적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박29장본]은 원래 29장인데 제12장(23, 24면)과 제16장(31, 32면)이 누락된 결본이다. 판의 크기와 한 면의 行數 및 한 行의 글자 수도 일정하지 않고, 글자체도 行書體, 草書指向的 行書體, 縱厚橫薄의 楷書體 등으로 다양하고, 판심제도 ‘春香傳’, ‘춘향전’, ‘春香’, ‘別春香傳’ 등이 섞여 있다. 그리고 장수 표시도 제27장까지는 ‘一’~‘二十七’로 整然하다가 제28장은 ‘三十九’, 제29장은 ‘四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不整한 모습은 [박29장본]이 여러 차례 보판 과정을 거친 후 출판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장수 표시의 비약은 [한29장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이므로 단순히 보판 과정에서 일어난 誤刻으로 볼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박29장본]보다 선행하는 완판본 중에 40장본 ‘(별)춘향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9장 끝에 “광대 목도 쉬니 쿵 ” “ ” “ ”이 있으므로 [박29장본]은 창본 그대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본을 저본으로 출판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²⁷⁾

이제 [한29장본]의 서지적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이 판본 역시 제9장 앞면(17면), 제11장 뒷면(22면), 제12장 앞뒷면(23, 24면), 17장 앞면(33면)이 떨어져 나간 결본이다. 그리고 제20장 뒷면(40면) 끝에 ‘完山新刊’이 있다. 판의 크기와 한 면의 行數 및 한 行의 글자 수도 일정하지 않으며, 글자체도 楷書體와 草書指向的 楷書體로 다르고, 판심제 역시 ‘春香傳’, ‘춘향전’, ‘춘향전’, ‘別春香’ 등이 뒤섞여 있다.²⁸⁾ 이러한 모습 역시 [한29장본]이 보판을 거친 뒤에 출판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손은 1840년대에서 50년대에 판각되어 간행되어 오다가 판이 완결되자 보판한 것이라고 했다.²⁹⁾

27) 김삼불에 의하면 이병기 소장본 <別春香傳> 끝에도 “어스또 힘장잘려 춘향이을 거늘려 경성으로 가다 광대 목도 쉬니 쿵쿵쿵쿵쿵”이 있었다고 한다.(김삼불, 「烈女春香守節歌 解題」, 『烈女春香守節歌』, 朝鮮珍書刊行會, 1949 : 민족문화사연구소회보, 통권 46호, 1993년 12월, 1면). 이로 보면 이병기 소장본은 [박29장본]과 동일한 판본일 것으로 짐작된다.

28) 동일본을 박순호 교수도 소장하고 있다.

29) 김동욱, 앞의 책, 438면.

2. [박29장본]과 [한29장본]의 관계

[박29장본]과 [한29장본]은 각각 몇 차례의 보판을 거친 뒤에 출판된 판본이기 때문에 양본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음에 출판되었을 초간본과 현재와 같은 實物本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물본의 경우 [한29장본]이 [박29장본]보다 먼저 출판된 것이 분명하므로³⁰⁾ 여기서는 초간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兩本의 체제와 행문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동종이판본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³¹⁾ 비록 부분적인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초간본의 관계를 밝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소중하다. 다음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㉗ 서두 부분(1면)

[박29장본] : ○별춘향전이라 극상³²⁾

숙종더왕 즉위 초의 시화연풍하고 국티민안하야

[한29장본] : 별춘향전이라

숙종더왕 즉위 초의 시화연풍하고 국티민안하야

㉘ 출판 사항 부분(40면)

[박29장본] : ●하우씨 어진 임금 구연지슈 만나또다 ●어니여 〃루 상사뒤

30) [박29장본]의 보판된 부분의 글자체가 행서체보다 후대에 등장한 중후형박의 해서체이므로 畵面이 행서체로 되어 있는 [한29장본]보다 뒤에 출판된 것이 분명하다. 김종철(1995), 앞의 글, 94면.

31) 행문 표기 및 어구의 차이를 한두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앞의 것은 [박29장본], 뒤의 것은 [한29장본]의 것이다. “청운 갓튼 고흠 멀이 반달 갓튼 용열레로 어셜 〃 홀너 비셔 전반갓치 넉짓 다야 뒤단장 민죽결과” : “청운 갓튼 고흠 머리 반달 갓튼 용어리로 셜 〃 홀너 비기 전반갓치 넘기 쌓아 뒤예난 근죽결과”(5면), “이 농수를 지여니여 보리밥 찰밥 만이 짓고 ●호박국 만이 끌리고” : “이 농수를 지여닐 쟈 버리밥 찰밥 만니 짓고 도미국 만니 끌리고”(41~42면), “명지경각하엿쓰니 글러헌 선경지판은 아국의 어니 이시라” : “명지경각하엿쓰니 세상의 그럭키 원통하고 불상흔 니리 잇시이요”(42~43면).

32) 실체는 ○ 안에 ‘×’가 들어 있다. 뒤의 영인자료 참고.

오33)

[한29장본] : ●하우씨 어진 님굼 구연지슈 만나소다 ○完西新刊

㉔ 마지막 부분(58면)

[박29장본] : 춘향 업무 거동 보소 궁둥이를 흔들면서 이 궁둥이 두엇다가
 논을 살가 밧을 슬가 흔들 디로 흔들어보시 남원읍너 슨름더라 아들 낫나 조
 와 말고 쌀 낮키만 힘을 쓰쇼 어스 "우가 조홀시고 지아즌 조홀시고 어스또
 힝장 찰려 춘향이를 거늘려 경성으로 가다 팡디 목도 쉬너 쿵 " " "

[한29장본] : 춘향 업무 거동 보소 궁둥이를 흔들면서 니 궁둥이 두엇다가
 근을 살마 밧홀 슬가 흔들 디로 흔들어보시 남원읍너 슨름더라 아들 낫키 심
 셔 말고 쌀 낮키만 힘을 쓰쇼 니 을시곤나 조을시고 지아즌 조을시고 어스사
 휘 조홀시고 지아즌 조홀시고 어스또 힝장 찰려 춘향이를 거늘려 경성으로
 가다

서두 부분인 ㉔의 차이는 [박29장본]이 후대에 보편된 장의 것이기 때문에
 초간본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단서와는 무관하지만 內題와 본문의 初頭 부
 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편하면서 앞부분에 “○” 紋樣을 붙이는 한
 편 “극상”을 덧붙이고, 본문의 초두를 “**슈종티왕**”으로 음각한 것은 시각적
 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특히 최상을 뜻하는 ‘極上’으로 짐작
 되는 ‘극상’은 당시의 流布本 예컨대 [임26장본]이나 [한29장본] 등 경쟁관계
 에 있던 ‘별춘향전’에 비해 최고의 善本임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㉔와 ㉕는 초간본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어 주목된다. [한29장본]은 [박
 29장본]의 “어니여 ” 루 상사뒤오” 자리에 간기(完西新刊)를 넣어 新刊임을 강

33) 실재는 ● 안에 ‘+’가 음각되어 있다. 뒤의 영인자료 참고.

34) 물론 이와 같이 문양을 붙이고 초두를 음각한 양식은 후기 완관본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29장의 판심체 ‘別春香傳’-[한29장본]은 ‘別春香’-에
 주목하면 [별춘향전이라 극상]은 해서체로 보편하면서 그 전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김증철(1995), 앞의 글, 93면).

조하였다. 그것은 또한 分券을 옆두에 두었던 흔적이기도 하다.³⁵⁾ 그리고 [한29장본]에서 “광더 목도 쉬니 쿵 # # # ”이 빠진 것은 “너 을시곤나 조을시고 지아즈 조을시고”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판이 다 차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 을시곤나 조을시고 지아즈 조을시고”를 굳이 넣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박29장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양상은 초간본의 경우 [한29장본]이 [박29장본]보다 뒤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박29장본]의 축약 양상

[박29장본]이 축약본이라는 사실도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므로³⁶⁾ 여기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다음은 ‘집장가’인데, [박29장본]의 축약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박29장본] : 집장호는 저 스영놈 나는 드시 달너들어 형틀 압피 변동 서며 에후러쳐 썩 부치니 뇌성벽력 별락치듯 듨에놈의 장적 꾀똥 각별리 민오 치니 춘향의 약혼 달리 신골호야 부셔지니 옥 갖턴 두 귀 밋터 홀로난니 눈물이오 소스난니 유혈이라 하나 치고 짐작할가 돌 치고 짐작할가 이부종스 썩지 업소 셋넷을 딱 부친니 스지를 잘너니여 스터문의 회시호여도 분부 시형 못호것소 다섯 여섯 일곱치 낫을 딱 부치니 칠거지악 안니여든이 형벌니 어인 일니오 열 치고 허박할가 삼십도를 밧중호야 착갈업슈 영니 난니 연약한 즈로서 호홉니 딱킨 중의 정신을 활릴손야(34면)

[박48장본] : 집장호는 저 스령놈 거동 보소 나난 다시 달너들러 동틀 압피 변동 시며 홀리쳐 썩 부치니 뇌성벽력 별락치듯 듨의놈 장적 꾀똥 각별이 민우 치친이 춘향의 약혼 달리 좌골 되고 옥 갖턴 두 귀 밋터 호려논이 눈물이오 살쏘논이 유혈이라 하나 치고 짐작할가 돌치고 짐작할가 일평상이 너 마음 이부종사 썩지 업소 셔이 너이 딱 부친니 숨신의 타고 나온 스지를 잘너니여 스터문에 회시호여도 분부 시형 못호것소 다섯 여섯 일곱 딱 부치니 오름이 분명호고 육예을 빙와 칠거지악이 업건단나 형벌이 웬일이오 여덜 아홉 민우 친이 팔자 기락호와 구천 드러간들 엇지 회심하일

35) 김종철(1995), 앞의 글, 89면.

36) 김종철(1995), 앞의 글, 99~102면 참고.

요 열 치고 허박할가 십연을 지니간들 빙설 갓탄 절기 변할 씨 잇실소야
 시물 치고 짐작할가 이십전 열여을 이가치 천디후이 천도 엇지 무심할후리
 요 술집도을 뒷잡후고 또 착가업수 령이 나리이 연약후 여자로서 호풍이
 막킨 중의 경신을 차림손가(46~47면)

[박29장본]은 [박48장본]의 밑줄 그은 부분과 일치하므로 [박29장본]은 [박48장본]과 같은 행문을 지닌 이본을 바탕으로 축약된 것이 분명하다.³⁷⁾ 삽입 가요인 ‘십장가’는 춘향을 열녀로 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핵심적인 대목이다. ‘십장가’의 고유한 기능은 비장미를 통해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춘향가> 소리꾼과 <춘향전> 작가들은 저마다 비장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십장가’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매우 확장되고 유동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³⁸⁾ 그런데 [박29장본]의 ‘십장가’는 지나치게 축약되어 ‘십장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물론 [박48장본]의 ‘십장가’도 “다섯 여섯 일곱 짝 부치이 오름이 분명하고 육예을 비와 칠거지악이 업전만난 형벌이 웬 일이요”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 과정에 있던 것이다. 19세기 후기의 성장한 ‘십장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완판33장본]을 살펴보면 그러한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리이 고찰후는게 십장가가 되야온나 일부중사후을 녀이 일심으로 구
 더쁘니 일역으로 후오릿가 ㉠두치 낫술 짝 부치니 불경이부 이너 심사 이
 미 맛고 죽인더도 이도령은 못 잇것소 ㉡세치 낫술 짝 부치니 삼종지도 지
 중후 법 삼감오름 알아쓰니 삼치형문 경비후여도 분부시힘 못후것소 ㉢네
 치 낫술 짝 부치니 사디부 사또님은 사괴스를 모로시오 스지를 갈너너여
 스테풍의 회시후여도 사부집 도령임은 못 잇것소 ㉣다섯치 낫 짝 부치니
 오미불망 우리 사랑 오날이나 소식올가 너일이나 기별올가 ㉤여섯 일곱 짝
 부치니 육시후야 쓸터 잇소 칠척검드난 갈노 둥 ㉥ 장글르게 형장으로 칠
 것 잇소 ㉦야달치 낫 짝 부치니 팔도방빅 수령임네 치민허러 내려 왓제 학
 정후러 내려왔소 ㉧아홉치 낫 짝 부치니 구곡간장 흐르난 눈물 구전의 사
 못즈니 주진디도 썰터 업소 ㉨열치 낫 짝 부치니 십실부로도 흥여리 잇살

37) [박29장본]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된 부분을 제외하면, [박29장본]과 [박48장본]은 처음부터 어사와 목중의 춘향이 상봉하는 데까지는 일치하고, 신관의 생일잔치 장면부터 끝까지는 제법 다르다. [박48장본]은 주21) 참고.

38) ‘십장가’에 대해서는 김석배, 「신재효의 판소리 지원활동과 그 한계」(국어국문학회 편, 『판소리 연구』, 태학사, 1998, 337~339면) 참고.

거든 고금 허다 창기 중의 열녀 혼나 업스릿가 ㉠열 치고 짐작할가 ㉡열다
 셋 짝 부치니 십오야 발근 달은 쟈구름의 못쳐난 듯 ㉢시물 치고 짐작할가
 ㉣시물다섯 짝 부치니 이십오현탄야월의 불승청원기비러라 ㉤삼십도 밍장
 혼나 춘향이 겹 〃 포학호의 소녀를 이리 말고 살지능지하여 아조 박살 시
 겨주면 초혼조 녀시되야 적막공산 달 발근 밤의 도련님 계신 고더 나아가
 파몽이나 하여이다 말 못호고 기절혼나(32~34면)

위의 인용문은 [완판33장본]의 '십장가'인데, 밑줄 그은 부분에서 일부 불완
 전한 모습이 보이지만 거의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완판84장
 본]에서는 19세기 후기의 완성된 '십장가'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완판84장
 본]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여섯째와 일곱째 매의 경우가

여섯 낫치 짝 부친이 육 〃 은 삼십육으로 낫 〃 치 고찰하여 육만번 죽인
 디도 육천 마디 열인 사랑 미친 마음 변할 수 전이 업소 일곱 나설 짝 부
 치니 칠거지악 범하였소 칠거지악 안이여든 칠기 형문 웬 일이요 칠척금
 드는 칼노 동 〃 이 장글녀서 이제 밤비 죽여 주오 치라하는 저 형방아 칠
 씨마다 고찰마소 칠보홍안 나 죽건네(115면)

처럼 장황하게 부연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의 '사랑가'에서는 더 큰 폭의 생
 략과 축약이 이루어졌다.

【○권주가 한 곡조의 ㉠일비 〃 부일비 반퀴하게 먹은 후의 ○분벽스
 창 김폰 밤의 ㉡두리 안고 마조 누어 귀비 〃 〃 집폰 스릉 ○시닛가 슈양갓
 치 ㉢척쳐지고 느려진 스릉 ○황우동산 목단화갓치 ○평평지고 〃 은 스릉
 ○포도 드러 넉출갓치 휘 〃 친 〃 감친 스릉 ○연평바다 그물갓치 ㉣열키고
 밋친 스릉 ○은하죽녀 직금갓치 ㉤울 〃 이 〃 은 스릉 ㉥청누미녀 침금갓치
 혼출마당 감친 스릉 ○은장 옥장 〃 식갓치 모 〃 니 잠긴 스릉 ㉦늬왕 북창
 노적갓치 담물 〃 〃 씨넌 스릉】 ○이 너 눈의 다든 스릉 ㉧이 너 몸의 다
 친 스릉 ○너는 죽여 못치 되고 ㉨나는 죽어 나부되야 ○삼춘니 다 진토록
 써나지 마조 호고 ○만청명산 늪근 범니 살진 암키 물어죽코 ㉩홍치며 논
 널 격의 ○출중춘유야전야 ○청누의 혼침하야 쥬야을 분별치 못호던니(1
 8~19면)

위에서 인용한 것은 [박29장본]의 '사랑가'로 제18면 11행부터 제19면 10행
 까지 총 14行(한 行 22자 내외) 약 300자 분량이다.³⁹⁾ 이에 비해 [완판33장본]

39) [박48장본]은 [박29장본]과 동일하다.

의 ‘사랑가’는 제15면 1行부터 20면 13行까지 즉 총 88行(한行 25자 내외) 약 2,200자 분량으로 되어 있다. [박29장본]의 ‘사랑가’는 대략 [완판33장본]의 1/7 정도에 불과한 분량인 셈이다. 【 】 한 부분까지는 [완판33장본]과 일치하지만 그 뒤로는 대폭적인 생략과 축약이 일어나서 ‘사랑가’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사랑가’는 19세기 전기에 활동한 고수관과 송광록의 더듬인데,⁴⁰⁾ 그 후 역대 명창들에 의해 새로운 것이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박29장본]의 ‘사랑가’는 그것이 출판되었을 당시의 소리판에서 불리던 ‘사랑가’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외에 이도령과 춘향의 이별, 어사와 월매의 수작, 춘향 下獄, 신관사또 도입, 군로 사령 출동, 어사 노정기, 춘향 편지 등에서도 생략과 축약의 정도가 심하다.⁴¹⁾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박29장본] 역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생략하고 축약한 염가의 보급판인 것이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19세기 후기에 ‘별춘향전’이란 동일한 제명으로 출판된 완판방각본 <춘향전>인 [임26장본], [박29장본], [한29장본]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26장본]의 초간본은 1850년대 전후에서 1890년대 사이에 출판되었고, 현재와 같은 [임26장본](실물본)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보판을 거쳐 1908년에 출판된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박29장본], [경판30장본]과 강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고, 농민 독자층의 구매력에 맞추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축약이 이루어진 염가의 보급판이다. 류탁일 교수 소장 [통감] 뒷표지 안쪽에 붙어 있는 <춘향전>의 낱장은 [임26장본]과 동일한 판목에서 인행된 것인데, [임26장본]이 초인본이고 낱장이 후인본이다.

40) 고수관의 더듬은 ‘자진사랑가’이고, 송광록의 더듬은 ‘진사랑가’이다.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32~33면 및 36면.

41) 김종철(1995), 앞의 글, 99~102면 참고.

그리고 제명에 ‘별’자를 내세운 것은 경쟁관계에 있던 [경판30장본], [경판35장본]과는 다른 ‘새로운 <춘향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박29장본]은 <춘향가> 창본을 바탕으로 축약한 것으로 몇 차례의 보판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춘향전>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제 앞부분에 문양과 ‘극상’을 붙이고, 본문 초두를 음각하였다. [한29장본]도 몇 차례 보판을 거듭한 판본인데, 新刊임을 강조하고 분권을 목적으로 ‘완서신간’이란 刊記를 넣었다. 그리고 실물본의 경우는 [한29장본]이 [박29장본]보다 먼저 출판되었지만 초간본의 경우는 오히려 [박29장본]이 [한29장본]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이들 역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대폭적으로 축약된 엽가의 보급판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yeolchunhangjeon Xerographically Published in Jeonju Area

Kim Sug-Bae

Chunhangjeon, which was xerographically published in Jeonju area at the late 19th century under the title of *Byeolchunhangjeon*, includes *Byeolchunhangjeonira*, 26 leaves, owned by Lim Hyeng-Taek; *Byeolchunhangjeonira-kuksang*, 29 leaves, owned by Park Sun-Ho; and *Byeolchunhangjeonira*, 29 leaves, owned by Han Chang-Ki.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first edition of *Lim Hyeng-Taek's 26 leaves* was pu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present edition, which had gone through at least more than two times of revision, published in 1908. This was very similar to the edition of both leaves owned by Park Sun-Ho and *Chunhangjeon*, 30 leaves, which was published in Seoul area in some parts. It was a cheap edition which was shortened by the xerographic story publishers for the farmers in Honam area, who were the main readers. It was ascertained that one leaf of *Chunhangjeon* at the back page of Tonggam owned by Ryu Tak-Il and *Lim 26 leaves* were the same edition. The reason 'byeol' was attached to the title was to show that this edition was the new one, different from *Chunhangjeon*, 30 and 35 leaves, published in Seoul area.

Second, the edition of *Park 29 leaves* is a shortened form of Pansori

Chunhangga and went through several times of revision. And in the course of revision, the design pattern and kuksang were attached to the title and the first four letters(숙종대왕) in the text was engraved to make this edition differentiated from other forms of *Chunhangjeon*. The edition of *Han 29 leaves* was revised several times, too, and was emphasized that this was a new edition. And for the division of the volumes the record of publishment was inscribed. While the present edition of *Han 29 leaves* was published before *Park 29 leaves*, the first edition of *Park 29 leaves* was published before *Han 29 leaves*. Both of these editions are cheap ones which were made to curtail the cost of production.

此의 고한 것을 기로 하여 신의 뜻을 행한 것과
 비례 중을 충과 명에 들니 스스로 금강을 얻는 지
 여산의 유소로 고천주의 드려와서 잠함을
 천연구의 보구박수의 본지나 소수의 유소를
 고박척의 유소를 향으로 의 뜻은 방불시라 능부
 로 죄수를 취케 하고 유물로 노는 의 처가 여
 무상스리요 내라 직배라 내라 박스여여
 생스리요 이 능스를 여겨서 부모방향을 여
 보셔 여서 무상스리요 두근 두근의 생리
 박라 동무라 유여가 본을 향이 생여 보
 가여가 반의 처가 리고 가여 보고 유물
 데 그 리고 향이 생리요 현천과 동무라 유물

[입26장본] 39면

此의 고한 것을 기로 하여 신의 뜻을 행한 것과
 비례 중을 충과 명에 들니 스스로 금강을 얻는 지
 여산의 유소로 고천주의 드려와서 잠함을
 천연구의 보구박수의 본지나 소수의 유소를
 고박척의 유소를 향으로 의 뜻은 방불시라 능부
 로 죄수를 취케 하고 유물로 노는 의 처가 여
 무상스리요 내라 직배라 내라 박스여여
 생스리요 이 능스를 여겨서 부모방향을 여
 보셔 여서 무상스리요 두근 두근의 생리
 박라 동무라 유여가 본을 향이 생여 보
 가여가 반의 처가 리고 가여 보고 유물
 데 그 리고 향이 생리요 현천과 동무라 유물

류탁일 소장 날장

